



### “술病 책임져라” 국내 첫 ‘알코올 소송’

술 소비 피해자 모임인 ‘알코올 소비자 권리보호 센터’ 회원 김진수씨 등 32명은 11일 국가와 술 제조 및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채 술을 판매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7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측은 이날 소장에서 “음주자가 술에 대한 구체적인 적정 섭취량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알코올 섭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라고 모호하게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주류 제조사 등은 인체에 해가 안 되는 적정 표준 알코올량을 술병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또 술 생산 및 판매사들에 대해 △알코올 중독 폐해에 관한 공익광고를 할 것 △술 소비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 센터를 전국 각 도에 1개씩 설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음주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동아일보 2004. 10. 12)

### “지방간 보유자 10년새 2배로 증가”

지방간 보유자가 10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삼성병원은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의 지방간 유병률을 조사 한 결과 지난 93년 전체 수검자(1만 7060명)의 12.2%에 그쳤던 지방간 보유자가 2003년에는 전체(6만 92명)의 25.4%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간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13.9%에서 33.4%로, 여성은 6.7%에서 11.7%로, 남성의 지방간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배 가량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0~40대는 2.3배, 50~60대는 1.8배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으로 판정된 수검자는 전체의 2.9%로 집계됐다. 지방간은 간 속의 지방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50%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 확률을 높인다.

소화기내과 김병익 교수는 “지방간과 관계가 큰 콜레스테롤 수치가 10년 전보다 15% 늘어난 점으로 볼 때 지방간의 증가는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서구 음식 섭취 증가와 운동부족에 의한 비만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간을 방치하면 지방간염과 간경변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운동과 금주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04. 10. 11)

### WHO, 아시아 ‘건강도시’ 서울 등 6곳 지정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킨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한 아시아 지역의 ‘건강





도시'로 서울 등 6곳을 지정·발표했다.

마닐라에 본부를 둔 WHO 서태평양 사무소는 이날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건강도시연합(AHC)' 창립 총회에서 서울 이외에 쿠칭과 일리외라(호주), 마리카나(필리핀), 울란바토르(몽골), 이치카와(市川, 일본)를 건강도시로 선정했다.

시게루 오미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은 "현대 문명의 중심인 도시는 옛날부터 성장의 엔진으로 알려졌으나 변화의 엔진이 될 수 있다"면서 "WHO는 건강도시 선정사업을 통해 도시가 보다 건강한 문명사회를 향한 변화의 엔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서울이 건강증진 투자계획을 위한 가장 훌륭한 제안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04. 10. 14)

로 치료,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 지식이 없는 무분별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관행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2000년에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서 처음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데 이어 2001년 미국간학회(AASLD), 2002년에는 유럽간학회(EASL)에서 B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했다.

대한간학회 서동진 회장은 "만성 B형 간염 자체의 임상적 중요성은 물론 지역과 인종에 따라 치료 반응에 차이가 있어 다른 나라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신문 2004. 10. 18) 72

## '한국판' 간염치료 가이드라인 나온다

국내 최초로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대한간학회(회장 서동진)는 최근 가톨릭의과연구원에서 전국의 의료 및 의료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간염치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시기적으로 간염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내·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은 물론 향후 도래할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새로 마련될 가이드라인에는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및 결과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도 포함돼 있다. 지침은 간염 치료 대상 환자군과 사용 가능한 약제, 치료제의 투여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은 물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면역억제제나 항암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또 간이식을 받을 경우 등 각각의 상황이 고려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 오는 11월 18일로 예정된 대한간학회 추계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보다 체계적

